

실직 노숙자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

The Effects of Group Psychotherapy on Recovery of Self-identification with the Unemployed Homeless

이 정 숙 · 김 윤 희*

한양대학교 소비자·가족·주거학과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Lee, Jung Sook · Kim, Yun Hee*

Dept. of Consumer & Family Studies, Hanyang University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s of group psychotherapy on recovery of self-identification with the unemployed homeless. To this end, 28 attending welfare-centers in Seoul area were sampled to be subject to 12 rounds of group psychotherapy for 6 week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s the, test, preliminary test and post-program test were conducted. Every round of the program activities were video-taped, while being obser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psychotherapy influenced positive effect. Especially, the unemployed homeless had a opportunity of self-comprehension, self-insight, catharsis, etc. Second, during group psychotherapy,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homeless were determined. Third, during group psychotherapy, the unemployed homeless complained about family problem, health, alcoholism, etc.

Key Words : the unemployed homeless, group psychotherapy, recovery of self-identifi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에서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노숙자 문

제는 극히 일부의 부랑인 문제로만 취급하고 사회적 관심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IMF 체제 이후 대량 실직사태로 인해 경제 생활에서의 어려움이 커졌으며 극단적인 형태의 노숙자 생활위기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노숙자란 좁은 의미로 '잠잘 곳이 없어 길거리에 서 잠을 자는 사람이며(Neal, 1997), 넓은 의미로

Corresponding author : Lee, Jung Sook

Tel : (02)2290-1185 Fax : (02)2290-1185

E-mail : ljs1994@hanyang.ac.kr

이 논문은 1999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는 '정규적이고 고정되고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이 실제로 길거리, 역사, 공원같은 공공장소, 차안이나 버려진 건물, 임시보호시설, 친척이나 친구의 집에 임시로 얹혀 사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Johnson, 1995).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개인 및 가족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재취업이 어렵게 되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숙자의 원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이 결합된 저학력 취업, 불안정한 주거생활, 취약한 가족구성이라고 가정하였다(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1998; 보건복지부, 1999).

이러한 원인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 사회적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존감의 상실, 정상적인 대인관계의 단절, 알코올 중독 등 부적응을 심각하게 보이게 된다(신원우, 1999). 또한 노숙자는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고립감을 느껴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저해로 부적응 증상을 일으킨다(김명언, 1998)고 하였으며 노숙자들 대부분이 자아 정체감 수준이 낮으며, 불우한 가족 환경속에서 부적절한 가족유대 및 가족의 위기를 자주 겪었던 경우 훨씬 더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1999)

노숙자에 대한 정책으로 정부는 종교 및 사회단체에 재정을 지원하여 급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한 귀가유도와 공공근로알선, 건강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하지만, 대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구호적인 차원의 서비스이며 서비스 제공자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는 노숙자에 대한 정책으로 각종 복지관 및 사회단체에 희망의 집을 개소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의 집은 한 곳에서 숙소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으므로써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전문성의 결여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희망의 집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드는 입소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막연한 일자리 추천과 공공근로배치 등의 단순 구직 서비스제공은 취업 후 자아정체감의 부재로 스스로 견디지 못하여 다시 거리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숙자들은 심리적 소외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되므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집단정신치료 중 미술치료요법은 여러 가지 미술매체를 통해 억압된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언어로 부딪치는 감정의 위기의 완화 및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현실점중력, 자기표현력, 자구성 및 자아상의 증진을 가져오며, 집단원간의 상호작용 및 자기 인식의 변화, 감정의 승화된 표현증진의 효과가 있다(명신영, 1999). 또한 집단정신치료극은 자발성과 창조성을 고양시켜 감정의 정화, 자아감 증진, 자기에 대한 이해와 통찰, 희망감을 부여하며 전반적인 생활태도변화 및 문제해결능력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한상순, 1989, 안윤영,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직 노숙자를 대상으로 집단정신치료를 통해 일시적이고 현시적인 개입이 아닌 심리 전문적인 개입으로 자아성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감정의 정화 및 분노표출, 내적불안과 좌절을 감소시켜 자아정체감을 회복하여 자활의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나아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가의지를 고취시키며 문제해결능력향상, 생활태도변화 및 열등감을 해소하여 조속히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실직 노숙자들은 집단정신치료에서 전반적인 행동변화는 어떠한가?
- 2) 실직 노숙자들은 집단정신치료를 통해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 3) 집단정신치료의 치유인자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실직 노숙자의 특성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숙자는 종래부터 존속하던 부랑형 노숙자와 실직 노숙자로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랑형 노숙자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며 실직, 질병, 폭음, 가족해체, 주거비 상승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복지시설 입소와 노숙을 반복한다. 반면, 실직 노숙자는 경제난과 함께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부랑형 노숙자와는 다르다. Stoner(1983)은 노숙자의 특성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적 장애가 있는자, 심한 개인적 우기(雨氣)를 경험한자, 경제적 실패로 고통을 당한자,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결여된 자로 보았다. 또한 Clinard(1981)는 부랑을 일탈행위로 보고 그들의 비생산적이고 비노동적인 성공 목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제도적인 수단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습적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하였다.

Maslow(1968)는 인간의 행동동기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등 다섯 단계의 계층구조에 따라 발생하며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생리적 욕구란 음식, 음료수, 산소, 활동과 수면, 성, 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데 실직 노숙자에게는 이와 같은 대부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안전의 욕구 등 다음단계의 욕구로 나아가지 못한다(심재학, 1999). 따라서 노숙생활이 길어지면 이러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으며 실직 노숙자의 특성이 습득되기도 한다. 즉 실직 노숙자의 특성은 무계획성, 의타성, 욕구불만, 열등감, 반사회적인 언동 등으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획득하려는 노숙생활의 결과로 얻어진 속성이다(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1996).

실직 노숙자의 발생원인을 개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데 개인적인 문제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을 찾고 유지할 수 있

는 기술부족으로 실직 노숙자가 되는 관점이고, 구조적 문제란 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하고 점차적으로 가능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Gerstel, 1996).

최근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직 노숙자는 실업이나 파산과 같은 경제력 상실과 질병 및 사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이 선행요인이 되며, 아내의 가출 및 이혼 등이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로 조사되었다(김수현, 1998). 또한 생산부문에 고용불안정 심화와 재생산 부문에서 소비수준의 양극화 및 상대적 박탈감 확대,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가족관계의 불안정이 실직 노숙자의 구조적 배경이다(심재학, 1999).

실직 노숙자는 노숙생활에 접어들면서 기본적인 숙식해결에 치중하며 일시적인 생활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지만, 점차 자존감의 손상, 수치심과 죄책감, 소외와 우울증, 분노, 좌절, 음주와 공격성, 고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성화된다(Hertzberg, 1992). 또한 Gory(1990)는 노숙이라는 생활조건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심재학(1999)의 연구에서, 실직 노숙자들은 현재 마음상태에서 심리적 외로움,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취업의 기회 및 심리적 문제 상담 및 치료라고 응답하였다.

우리 나라의 노숙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2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5,700여명은 153개소의 노숙자 쉼터에서 숙식제공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 따르면, 노숙자의 98% 정도가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41세, 연령분포는 3,40대가 80%정도, 학력은 고졸이 4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졸28%, 초졸 19%순으로 보고하였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 노숙자가 과반수인 51%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으로 가족해체 상태의 노숙자 24%에 달한다. 또한 매일 술을 마시는 노숙자는 전체의 12%로서, 일반 국민의 음주율의 3배에 이르며 이를 포함해서 노숙자의 48%가 매일 혹은 일주일에 1내지 2회의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노숙자들의 70%는 실직 전에 대부분 일용 노동자였다.

따라서 가족해체,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에서의 이탈, 사회적 지지망의 붕괴 등 생활상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심신의 건강문제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와 깊게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 노숙자에 대한 서비스는 노숙자 상담소와 기타 민간 상담기관을 통한 취업 및 숙소 알선 상담 서비스, 종교,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서울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우역하는 근로자 한숙소 및 노숙자 쉼터 등에 의한 숙소제공, 그밖에 각 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공 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 선정을 통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만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원우, 1999).

이상에서 보면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불우한 가정환경, 주거환경과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거리에서와 부족하고 미흡한 사회복지 및 정부 대책 속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숙자들은 기본적인 욕구 해결이 부족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 존중감 저하 및 열등감으로 자아 정체감에 혼란을 일으켜 부적응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의 연락이나 사회적인 유대 단절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집단정신치료

1) 집단정신치료극

집단 정신 치료극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치료의 한 방법으로 집단안에서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는 즉흥극으로 환자집단 및 일반 다른 여러 상황에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알력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Moreno, 1974).

집단 정신 치료극은 각 개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언어와 행동을 연기로 표현하는 정신치료의 한 형태이며(안윤영, 1998) 집단치료의 면에서 각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치료적 인자가 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따라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생겨나게

한다(Starr, 1979).

특히 정신 치료극은 참여자의 외양화(acting-out) 하려는 충동을 내양화(acting-in)라는 구조적 통로로 전환시키게 된다. 여기서 외양화는 개인이 자신의 내적 충동을 상징적 혹은 실제적 행동의 표현으로 발산시키는 정신방어기체에 관한 것이므로 행동에 대한 통찰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외양화를 통해서 의식이 수면으로 떠오른 충동이나 그것에 관련된 환상, 기억, 투사 등을 내양화를 거쳐 감정표현을 하게 되며 동시에 개인의 자아 의식을 발달시켜 정서적 갈등을 명백히 해 줄 수 있다(김유광, 1983).

Chandler(1973)는 집단정신치료극이 타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역할수용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Lewinsohn(1984)는 개인과 환경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우울을 즐거운 행동으로 강화시켜 우울수준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정신치료극이 중학생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불안감과 적대감을 감소시켰으며(박상미, 1991),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치료극의 효과를 연구한 임계원과 이근후(1981)는 정신치료극이 환자의 정서표현, 대인관계를 포함한 사회성, 자발성, 자기수용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형득(1986)은 정신치료극이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통하여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불안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특히 실직 노숙자 문제 연구소(1998)는 정신치료극이 실직 노숙자들에게 정서순화 및 가족으로의 복귀의지, 자립에 대한 욕구 지지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집단정신치료극 내에서는 여러 기법들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갈등을 명료화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들과 억압되어 왔던 감정을 분출시키므로 자신의 여러 모습들을 내적 통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김유광 등, 1992 재인용).

이러한 정신치료극에서의 여러 기법들은 치료를 촉진시키고 여러 상황에서 좀더 만족스러운 재사회화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정신치료극의 진행에 사용되는 기본 기법들은 거울기법(mirror technique), 독백(soliloque), 역할전환(role reversal), 이중자아(double), 미래투사기법(future projection

technique), 마술가게(magic shop), 빈의자 기법(empty chair technique)등으로 300가지가 넘으며 이것은 주인공과 집단이 문제탐색과 갈등해결을 위해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집단 정신치료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인공, 연출자, 보조자(집단정신치료극에 참여하는 주인공과 연출자 이외의 모두를 지칭하며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탐구하도록 돕기 위해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수동, 1997), 관객, 무대 및 조명, 음악이 필요하다. 즉 주인공, 연출자, 보조자, 관객은 정신치료극의 4대 구성요소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정신치료극이 적용되는 분야로서는 정신건강을 다루는 곳, 즉 병원, day care center, 술과 약물 남용을 다루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정신치료적 집단이며, 또한 가정과 어린이 및 청소년 집단, 학교, 현장과 전문적인 훈련기관, 산업체, 기타 수용집단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된다(Blatner, 1973)

2)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는 개별, 집단 모두에게 적용하여 대상자의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언어로 부딪히는 감정의 위기의 완화 및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어 자주 적용된다. 미술은 대인관계, 현실검증력, 자기표현력, 자주성 및 자아상의 증진 등을 가져올 수 있고(Moriarty, 1976), 자기인식변화 및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 감정의 승화된 표현 증진등을 가져올 수 있다(Lund, Ormerod & George, 1986). 미술치료는 개인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진단적 평가와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 표현활동, 재활요법 등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또한 미술치료는 연령과 지능, 미술적 소질에 거의 제한이 없고, 노인에게도 자신의 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공상에 잠겨있는 사람에게는 억압된 긴장을 해소할 기회를 주며, 약물남용자에게는 자신의 생활을 검토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할 수도 있다(Wadson, 1980).

특히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들로 하여금 그림을 매체로 내면에 있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동시에 갈등을 재경험하고, 자기인식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찰 및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참

여능력을 높이며 보다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등 일련의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김동연·이성희, 1997).

박현희(1999)는 집단미술치료가 집단원 간의 표현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택중(1985)은 집단원간의 공동작품이나 집단활동을 통해 정신역동을 파악하고 자신감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집단미술치료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방어적 자기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통찰과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경험하게 되며, 집단활동을 통해 집단원에게 또는 치료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서서히 성장하게 된다. 현실의 부적응 행동이 생산적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신치료의 매개체로 자기인식과 개인적 성장강화, 갈등을 해소시키는 치료로서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박현희, 1997).

집단미술치료는 작품의 미적가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한국미술치료학회편, 1994). 그래서 집단 미술치료는 집단활동과정에서 집단원들이 같은 주제와 미술재료를 가지고 집단원들의 다양한 표현능력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각 작품마다 특별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특히 집단미술치료가 자신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각시키는 주제일 경우는 자신을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기 존중감향상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칭찬을 주고 받는 것, 감사하는 마음, 애정을 주고 받는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풍부한 창의성으로 밝고 활발하게 행동하며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유연함을 보인다(전미향·최외선, 1998).

특히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율적인 선택이나 결정, 개인적 책임, 진취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데, 집단미술치료는 집단활동과정에서 미술매체의 선택이나 색상의 선택,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집단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다(강승규, 1992; 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전미향·최외선, 1998).

집단미술치료를 통하여 집단원들은 고립감과 외로움이 감소하게 되며 협동작업을 통해서 서로 좀더 가까워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 누구나가 불안울 경험하고 있으며, 고통이 자신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한 집단에 계속 참여하게 되면 그 집단의 규칙과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도 한다.

집단미술치료는 여러 사람이 집단에 참여하므로 개인치료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잠재적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노숙자의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희망의 집에 있는 노숙자와 성북구 지역 복지관 희망의 집에 있는 노숙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단정신치료에 적합한 빈도가 높은 노숙자들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노숙자 22명만을 연구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단,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위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집단정신치료 프로그램이 실시했던 시간이 저녁시각(7:30-9:00)이었던 시기 때문에,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하고 불참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설문지의 응답이 불성실한 부분을 제외하여 효과를 검증하였기 때문에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의 빈도가 동일하지 않다).

2. 연구설계 및 측정도구

집단정신치료가 노숙자의 자아정체감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설계를 하였다. 자아의식 검사도구(Fenigstein, Scheier &

Buss, 1975)를 사용하여 집단정신치료를 실시하기 전,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숙자들의 집단정신치료 실시 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2회의 집단정신치료가 끝난 후, Yalom의 Q-sort문항 중 이정숙(1992)이 발췌하여 만든 치유적 인자에 관한 6개 영역 24개의 문항으로 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1999년 11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주 2회(매주 수, 금)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매회 시간은 90 분씩 소요하였다.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준비단계, 주활동, 공유하기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표1 참조)을 적용하였다.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주로 부드러운 음악 및 조명, 신체활동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개선하고 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여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다.

주활동에서는 초기단계에서 집단 정신 치료극을 실시하였으며 자발성과 창조성, 즉흥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욕구 및 소망 등을 인식하고, 무대에 올라오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하였다. 중반기에서부터는 정신치료극과 미술치료 기법을 병행하였다. 즉 여러 가지 미술치료의 기법을 이용하여 창의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활동에 참여하므로써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소망, 갈등, 좌절감 등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고, 만든 작품을 감상하고 설명하면서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감상에 대한 느낌을 상호 교환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자신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을 통찰함으로써 자신이 본래 갖고 있으면서 발휘하지 않았던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집단정신치료 실시과정의 전반적인 변화를 알아

〈표 1〉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회기	날짜	준비단계	주제	마무리단계	기대효과
1회기	11월17일	자기소개 운동경기	조각작품 만들기	느낌나누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집단 원간의 이해 및 신뢰감의 발달을 도와주 며 공동 조각작품을 통해 집단원간의 친 밀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2회기	11월19일	눈감고 넘어지기(인간 가마) 신뢰감 릴레이 경주	미술가계 (버리고 싶은 것, 사 고 싶은것)	느낌나누기	신뢰감 바탕으로 자유로운 상호작용 촉 진, 자신의 욕구를 이해한다.
3회기	11월24일	정중하게 인사하기 손바닥으로 밀어내기	미술가계 (확장기념홍보)	느낌나누기	집단원과의 상호작용으로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4회기	11월26일	행동따라하기 눈감고 움직이기	미술가계 (직원채용시험)	느낌나누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느낌, 현재 사고 가 어떤 수준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스스로 주활동에 참여하고 지 시하므로써 자신감을 길러준다.
5회기	12월 1일	풍선터트리기 자기이름 몸으로 표현 하기 상대방에게 마음을 담 아 풍선전달하기	미술가계 (내가 주인공어보자)	느낌나누기	집단정신치료극을 통해 즉흥성을 길러 주고 자신감 및 적극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6회기	12월 3일	음악들으면서 걷기 자신의 파트너 찾기	만다라그리기	느낌나누기	명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을 자 발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자신의 내적인 정서이해 및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7회기	12월 8일	음악들으면서 걷기 가고 싶은 곳 가기	지점도 작업	느낌나누기	정서적으로 억압되었던 것을 참혹을 만들 므로써 이완되고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 끼도록 하고 정서적인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8회기	12월10일	음악들으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기 신문지위에 올라가기	신체본뜨기	느낌나누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가능하며 상 호간의이해 및 이상과 현실차이에 대한 이해로 심리적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9회기	12월15일	음악듣고 느낌을 몸으 로 표현하기	동화를 통한 즉흥극	느낌나누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자발적인 즉흥극을 통해 창조성이 증진된다
10회기	12월17일	눈감고 춤추기	석고가면만들기	느낌나누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면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 하여 자기지각력을 기르고 이를 통해 있 는 그대로의 자기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11회기	12월22일	림보게임	석고가면색칠하고, 발표하기	느낌나누기	춤추면서 가볍게 림보게임을 통해 유쾌함 을 증진시키고, 가면이 색칠을 하므로써 자기욕구를 인식한다. 또한 자신의 목표 를 확인하고 타인의 정서를 공감한다.
12회기	12월24일	타악기두드리기	축제한마당	느낌나누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단원간의 결속력을 다지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 짐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보기 위해 각 회마다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매회 관찰기록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 3명과 12명의 보조자가 참여하였으며, 집단 정신치료의 진행 및 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노숙자의 자아의식에 대한 변화 및 치유적 인자를 알아보기 위해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아의식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치유적 인자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정신치료극을 실시하면서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기록과 비디오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집단 정신치료에서 실직 노숙자의 전반적인 행동변화

실직 노숙자들이 집단정신치료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감정표현 및 전반적인 행동변화는 다음과 같다.

1) 1회기 첫만남

주제 : 조각작품만들기

준비단계에서 노래를 부른 후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첫 시간이어서 낯선 지도자의 등장 및 보조자들의 등장을 보며 매우 어색해하고 불안해하며 대부분이 활동에서도 벽쪽으로 붙어서 움직였으며 카메라를 매우 의식하였다. 자기소개와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이완되는 듯 했으며 자기소개를 한 후 행동으로 신체활동을 통한 운동경기를 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지고 승부에 점차 몰두하는 등 활동에 집중하였다. 주활동(주제)단계에서는 10명이 한 조가 되어 한사람씩 무대에 올라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취한 후 10명이 모두 무대에 오르면서 서로 손을 잡고 음악과 디렉터의 신호에 맞춰 하나의 조각작품을 만들면서 점점 친숙해지고 조각작품만들기에 몰두하

는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느낌을 공유하였는데, 다소 목소리가 긴장되고 카메라를 의식하기를 하였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표현을 주로 하였다.

2) 2회기

주제 : 마술가게(버리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준비단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때에 손을 뒤로 소극적으로 움직이며 어색해하고 가장자리에 서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 3, 5명씩 짝을 짓게 하자 서로 이야기하며 조금씩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받치고 넘어지는 활동을 하자, 매우 즐거워하며 서로 서서히 융합하였다. 릴레이 경주에서 서로 믿어야만 빨리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타인을 신뢰하는 것 같았다.

주활동에 들어가서 마술가게에서 가게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러 참여자들 쪽으로 가자, 주저하고 쑥스러워하였다. 물건을 구입하러 나온 사람은 3명으로, 먼저 60세 정도의 참여자가 자신의 술버릇을 버리고 건강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하고 건강을 사가면서 점점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증가되었다. 참여들의 자발적인 드라마로 자신의 내적인 상태(절망, 좌절, 버림받은 것)를 마술가게에 놓고 자신이 희망하는 가족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자립의 희망 등을 구입하였고, 관객으로 있던 참여자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진정한 공감을 하였으며 많은 호응을 하였다.

마지막 마무리단계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다짐, 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 등을 나타냈다.

3) 3회기

주제 : 마술가게(확장기념 홍보)

준비단계에서 위밍업하는 동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였으며, 서로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상상하여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표현하게 할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새, 나무, 바위 등 자연을 표현하였으며 현재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듯 하였다.

주활동인 미술가게에서 점원 중 부장이 실직 노숙자 중 한 사람이 나가게 되고 자발적으로 품목에 대해 설명하자, 관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집중하고 신기해하였으나, 품목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자 다소 지루한 표정을 짓기도 하였다. 품목을 설명하는 점원의 말에서 실직 노숙자들의 현재 살아가는 상태, 마음상태 등을 말하자, 진지해지기 시작하였다.

마무리단계에서 느낌을 이야기할 때도 미술가게 운영에 참여자가 참가하는 기회를 갖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였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진실, 용기, 행복, 착하게 살아감, 웃음 등의 피드백을 하므로써 내적인 느낌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4) 4회기

주제: 미술가게(직원채용 시험)

준비단계에서 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적극적이고 즐거워하였으며, 눈을 감고 움직일 때도 동작이나 걸음걸이가 매우 이완되고 자연스러웠다.

주활동인 미술가게에서 직접 사장을 하도록 권유하자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나오고, 사장과 부장이 점원채용시험을 지시하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극을 이끌어나갔다. 점원채용시험에서 사장은 각자의 포부와 의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점원 채용을 한 후 물품에 대한 소개를 시켰는데, 실직노숙자 중 한 사람이 점원으로 건강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홍보 후 건강을 사러 온 사람이 나오자, 좀더 자신감을 얻고 자발적인 행동을 보였다. 미술가게에 물건을 한 참여자가 용서를 사고 싶다고 하며 자신의 과거에 아픈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저항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자신을 찾고 싶은 욕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과거 자신들을 돌아보는 듯 하였다.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 대부분의 피드백이 과거 생각이나 고향 생각이 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였다.

5) 5회기

주제: 미술가게(내가 주인되어 보자)

준비단계에서는 풍선을 터트리는 것에서 즐거워하였으나 중간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여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몸으로 소개하도록 할 때는 쑥스러워하기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매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활동인 미술가게에서는 실직 노숙자들을 직접 사장과 점원으로 디렉터가 뽑았는데, 사장으로 뽑혀진 참여자는 매우 경직되고 쑥스러워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점차 무대 중앙에 나와서 다른 손님을 적극적으로 맞기도 하고 손님 역할을 맡은 참여자들도 처음엔 보조자에게 이끌려 왔으나 나중엔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사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직접 참여자가 사장 및 회장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여 대리만족의 기회 및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소망이나 문제를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단계에서도 건강, 희망, 서로에게 다짐 및 의지를 심어주는 희망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6) 6회기

주제: 만다라 그리기

준비 단계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때 점차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친숙해진 듯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상대방의 손을 잡아보고 자신의 파트너 찾기를 할 때에는 어색해하고 불안한 듯 눈을 약간 뜨고 찾았으나 자신의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파트너를 확인한 후 매우 좋아하였다.

주활동인 만다라 그리기는 참가자들이 명상을 한 후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는데,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앉아서 명상을 하자 각자 다양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였다. 명상 시에는 다리를 정좌하고 있거나 인상을 쓰는 사람,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 등 다양하였다. 여러 번의 미술가게 후 처음 해 보는 미술활동이어서 인지 약간 당황해하기도 하고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려 크레파스를 잡으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자신의 마음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가족, 분노, 평화, 희망, 자연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렸다.

마무리 단계에서 명상에 대한 느낌과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이 명상과 그림을 통해 자기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을 찾고 싶다고 말하는 등 다소 진지하였다.

명상과 만다라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의 시간을 갖은 것으로 보여진다.

7) 7회기

주제: 지점토 작업

준비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걸기를 통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듯 하였다.

주활동 단계인 지점토 작업에서는 지점토를 만지면서 새로운 경험이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점토를 만지면서 옛날에 먹던 수제비에서부터 애벌레, 송편, 크리스마스 트리,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등 미술활동에서 조금 더 자신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듯하였다.

마무리단계에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에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어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미술가계에서는 주인공이나 물건을 사러 나간 사람들 이외에 관중으로 남아있었지만,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작품, 느낌을 모두 참여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8) 8회기

주제: 신체본뜨기

준비단계에서는 5-6명이 한 조가 되어 신문지위에 올라서면서 신체적 접촉이 많고 동작이 활발해지자 긴장이 완화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서로간의 단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주활동인 신체 본뜨기에서 종이 위에 누우라고 하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편안하게 누는 등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본이 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며 자신을 색깔로 칠하고 잡지를 붙이면서 자기의 모습을 완성해나갔다. 간혹 참여자들 중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꾸미지 못하고 글씨나 한가지 색으로만 칠하는 등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에 어색해하기도 하였다. 벽에 붙이면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자신의 각오, 욕구, 감정, 희망,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인식 및 통찰의 기회를 가졌고 다른 사람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하였다.

마무리 단계인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인지 차분한 분위기로 내적인 느낌과 자신에 대한 굳은 각오의 말로 마무리하였다.

9) 9회기

주제: 동화를 통한 즉흥극

준비단계에서는 음악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위빙업을 통해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특히 여러명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춤추면서 부담이 덜하고 즐거워하는 듯하였다.

주활동인 동화를 이용한 즉흥극으로 토론을 할 때 매우 적극적으로 극 준비를 하였다. 각자 다양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극(성냥팔이 소녀, 흥부와 놀부, 불펜팔이 소녀)을 하였으며 순간의 대처방법도 매우 창의적이며 유머스러웠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극을 이끌어가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았으며 직접 무대에 모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연극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많은 호응을 해주었다.

마지막 마무리단계인 공유하는 시간에 대부분의 피드백이 매우 즐거웠으며,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들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10) 10회기

주제: 석고 가면 만들기

준비단계에서 눈감고 춤추기를 하였는데, 눈을 뜨고 춤을 추는 것보다 눈을 감고 춤을 출 때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이며 특히 이전 활동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활동에 들어가면서 서로 가면을 만들어 줄 때 처음 해 보는 경험들이어서 무척 좋아하고 진지해졌다. 또한 가면을 통해 자신의 표정이나 얼굴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며 만족해 하였다.

마무리단계에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에 석고 가면에 떠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가면의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내적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11) 11회기

주제: 석고가면 색칠하고 발표하기

준비단계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면서 줄을 지어 림보게임을 하는 동안 매우 즐거워하였으며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주활동 단계에 들어가자, 가면에 색을 칠하는 동안 매우 열중하고 진지하였으며 활동에 점점 몰입하였다. 가면을 만들고 나와서 가면을 들고 가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재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슬픈 모습, 그리운 사람, 과거 추억의 인물, 분노 등을 표현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색을 칠하면서 좀더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딸에게 이야기도 하는 등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고조된 듯 하였다.

마무리 단계인 공유하는 시간에 현재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뻐하며 앞으로 헤여져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피드백을 함으로써 자신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하였다.

12) 12회기

주제: 축제의 한마당

우리나라의 타악기를 치고 춤을 추면서 모든 참여자가 하나된 듯 즐거워하며 흥에 겨워 자연스럽게 어깨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열췌하면서 장단을 맞추기도 하였으며, 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물놀이를 하는 듯 복치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몰입하였다. 춤을 추는 사람과 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대를 하였고, 나중에 한사람씩 나와서 춤을 출 때는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흥에 겨워하였다.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를 모두 뺏아내는 것 같았으며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았다. 마지막 공유하는 시간동안 크리스마스 이브(12회기는 12월 24일에 실시되었음)를 태어나서 이렇게 가슴벅차게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감격해하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피드백에서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였고, 새천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들이 갖는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감사의 표현을 하며 아쉬워하였다.

2. 실직 노숙자의 자아정체감 변화

위의 활동을 통해 실직 노숙자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변화를 자기의식 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기의식에는 사적자기의식, 공적자기의식, 사회적 불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적자기의식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로 습관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어서 개인적 태도 및 일관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공적자기의식은 주의가 개인의 외부환경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사회의 기대나 요구에 좀더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것이며,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걱정 및 불안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사적자기의식이 높고 공적자기의식이 낮은 경우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높으며,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되어 행동에 있어서 억제나 회피행동을 하게 된다

〈표 2〉 자기의식의 변화

내용	M(SD)		
	사전검사(N31)	사후검사(N17)	t-value
사적자기의식	3.04 (0.64)	3.35 (0.55)	-0.64
공적자기의식	3.14 (0.88)	2.80 (0.56)	1.17
사회적 불안	2.86 (0.90)	2.80 (0.72)	0.02

고 한다(김득란, 1993). 프로그램의 실시전과 실시 후 자기의식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 실시 후 실직 노숙자들의 자아의식 변화수준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전에 참여한 인원과 실시한 후 사후 검사에 참여한 인원에게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적 자아의식은 높아졌으며 공적자아의식, 사회적 불안에서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적자아의식이 높아지고 공적자아의식이 낮아진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인식정도가 높아지고 행동

의 일관성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억압이나 회피 행동이 줄어들어 자아정체감 회복의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의 치유적인 인자로 볼 수 있는 내적인 정서 이해 및 자신의 문제에 대한 강한 통찰력, 자기 수용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실직 노숙자들의 자아정체감 회복에 대한 좀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3. 집단 정신 치료의 치유 인자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참가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표 3> 집단 정신치료의 치유인자

N(%)

하위요인	내 용	그렇다	아니다
자기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	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4(18.2)	18(81.8)
	나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13(59.1)	9(40.9)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8(36.4)	14(63.6)
	내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31.8)	15(68.2)
	프로그램을 한 후 나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14(63.6)	8(36.4)
자기이해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18(81.8)	4(18.2)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의 새로운 면을 볼 수 있었다	16(72.7)	6(27.3)
	점점 표현력이 높아지는 것 같다	18(81.8)	4(18.2)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3(59.1)	9(40.9)
타인이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17(77.3)	5(22.7)
지 침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모든 것을 진실 되게 대하고 싶다	18(81.8)	4(18.2)
보 편 성	내 문제가 나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16(72.7)	6(27.3)
카타르시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불안했다	6(27.3)	16(72.7)
	프로그램에서 나 자신을 잘 표현한 것 같다	11(50.0)	11(50.0)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기분이 후련했다	11(50.0)	11(50.0)
	기회가 된다면 다음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14(63.6)	8(36.4)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된다	10(45.5)	12(54.5)
	나 자신이 너무 노출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	8(36.4)	14(63.6)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17(77.3)	5(22.7)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기분이 매우 나빠졌다	5(22.7)	17(77.3)
	프로그램을 한 후 머리가 맑아졌다	11(50.0)	11(50.0)
	프로그램을 참여한 것이 만족스럽다	14(63.6)	8(36.4)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기분이 정리되었다	12(54.5)	10(45.5)
	프로그램을 한 후에는 피곤이 풀렸다	8(18.2)	14(81.8)

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의 느낌과 어느 정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기록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집단 치료프로그램이 실직 노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의 치유적인 인자로 자기이해, 타인이해, 보편성, 지침에서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신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문제 해결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노숙자들의 현재 환경적인 상태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전체 참가자들의 경우 집단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실되게 대하고 싶다는 반응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의 정화인 카타르시스 부분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이 노출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 등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집단 치료프로그램이 자기 노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머리가 맑아졌다」 「기분이 정리되었다」 「기분이 풀렸다」 「피곤이 풀렸다」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수를 약간 넘고 있어 집단치료프로그램이 완전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노숙자들이 제반 환경조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프로그램 실시 시간이 공공근로가 끝나고 돌아온 직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Marcovitz(1983)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환경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수치심이나 무가치한 느낌을 줄여주고 자존감을 증가시켜 주며 스스로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고통이 유일하게 자기만 지니는 것이 아니며 공통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안도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창원·김유광(1988)은 입원한 주정중독 환자에게 있어서 정신치료극의 효과 중 보편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가족상황, 부모

나 형제들에 대한 증오, 분노 등을 상대방을 통해 경험하여 무의식적 소망, 욕구 등을 탐색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안도감을 찾으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정서의 이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느낌을 인식하는 것으로 심리적 통찰과 이해에 필수적인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절하게 이끌어가며 개인적 결정의 순간에 어떤 감정을 가져야할 지에 대한 정확한 감각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자기이해를 통해 자기동기화가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감하는 능력 및 관계형성에서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환 가능하며 이러한 것은 대인관계효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최해림·장성숙, 1993).

이상에서 실직 노숙자의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은 실직 노숙자들에게 자기이해 및 자기 통찰, 타인이해, 보편성, 지침 및 감정의 정화부분에 프로그램의 치유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은 실직 노숙자들에게 자존감의 증가, 심리적 안도감, 무의식적 소망, 욕구 탐색, 자기이해를 통한 심리적 통찰과 자신에 대한 인식확대 및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적절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지 및 효율적인 대인관계, 상황대처능력이 향상되므로써 자아정체감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V. 결론 및 제언

실직 노숙자의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은 실직노숙자들에게 자기이해 및 자기 통찰, 타인이해, 보편성, 지침 및 감정의 정화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존감의 증가, 심리적 안도감, 무의식적 소망, 욕구 탐색, 자기이해를 통한 심리적 통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대인관계, 상황대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실직노숙자들을 위한 집단 치료프로그램

은 자아를 회복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으므로 보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심리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자아정체감 회복을 위한 집단정신치료 프로그램 실시과정 중에 실직 노숙자들의 개개인적 특성을 볼 수 있었다. 즉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을 언어, 신체, 미술, 음악, 즉흥극 등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하고 표현하는 정도 및 정서표출, 내면의 욕구를 나타내는 정도가 달라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을 통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매체 및 도구를 이용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기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집단정신치료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가족, 건강, 알코올 등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실직 노숙자들의 개인적인 심층적인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족과의 적응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후 재상담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상시 개인 상담 및 가족상담을 위한 장소가 요구되며 전문적인 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겠다.

주제어: 실직 노숙자, 집단정신치료, 자아정체감 회복

참 고 문 헌

- 강승규(1992).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 김동연·이성희(1997). 결혼가정 아동의 자긍심 강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연구. 4(1).
- 김득란(1993).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계 변인의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언(1998). 동기와 성격 「Motivation and Personality」. 서울대 심리과학. 7(1).
- 김수동(1997). 정신치료극의 개요. 정신건강과 예술치료. 한국임상예술치료학회 연수자료집. 2.
- 김수현(1998). 홀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 김유광(1983). 싸이코 드라마의 기원 및 역사. 정신건강과 예술치료. 한국임상예술학회 연수 자료집. 2.
- 김유광·김혜남·이정숙(1992). 정신치료극의 치료 인자에 대하여. 한국임상예술학회. 7(1).
- 김창원·김유광(1988). 주정중독으로 입원한 환자에 적용된 정신치료극의 효과. 신경정신의학. 27(2).
- 노숙자 다시 서기 지원센터(1998). 노숙자의 원인과 양상. 명신영(1999). 집단정신치료극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미(1991). 심리극을 통한 집단상담에서의 공격성과 자아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희(1997). 미술치료의 실제. 정신건강과 예술치료. 한국임상예술학회 연수자료집. 1.
- 박현희(1999). 미술치료의 실제, 임상예술. 10(1). 한국임상예술학회.
- 보건복지부(1999). '99 노숙자 지원사업계획.
- 신원우(1999). 실직 건설 일용 노동자의 노숙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실직 노숙자 문제 연구소(1998). 실직노숙자 프로그램 백서.
- 심재학(1999). 실직노숙자의 욕구 및 실태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윤영(1998). 집단 정신치료극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계원·이근후(1981). 심리극효과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3).
- 이정숙(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기 갈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1999). 노숙자의 자이분화와 부적응 증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택중(1985). 회화요법의 이론과 실제. 임상예술. 한국임상예술학회.
- 이형득(1986).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전미향, 최외선(1998).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
기존증감과 사회적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5(1), 한국미술치료학회.
- 주영수(1998). 노숙자 건강실태보고서. 98학술대회
-IMF 시대, 노숙자 실직자 요보호 아동의
건강문제와 대책 자료집. 인도주의 실천의
사협의회.
- 최해립·장성숙(1993).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한국미술치료학회편(1994).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 동아문화사.
-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1996). 21세기를 향한 부
랑인 보호사업의 발전적 모색. 제 5회 부랑
인 복지세미나 자료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도시노숙자 실태.
- 한상순(1989). 만성정신장애자의 자아강화를 위한
심리극 활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latner, H. A.(1973). Acting in: Practical
Application as Psychodramatic Method.
N. Y., Springfield Public Co Inc.
- Chandler, M. J(1973). Egocentrism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35(8).
- Clinard, M. B.(1981). Robert Merton: Anomie and
Social Structure.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of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 Gory, M. L., Ritchey F. J., Mullis, J.(1990).
Depression among the Homel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1.
- Hertzberg, Edwina L.(1992). The Homeless in the
United States: Condition, Typology and
Intervention. *International Social Work*. 35(1).
- Johnson, A. K(1995). Homelessness. In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
- Lewinsohn(1984). Theoretical Issue in Behavior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Lund C, Ormerod E, George K(1986). Art Group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9.
- Marcovitz R. J, Smith J. E.(1983). Patients perceptions
of curative factors in short-term group
psychotherapy. *Journal of International Group
Psychotherapy*. 33.
- Maslow, A. H.(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D.van Nostrand.
- Moreno, J. L.(1974). A survey of Psychodramatic
Technique. In I. A. Greenberg ed.
Psychodrama: Theory and Therapy. New
York: A conder Book.
- Moriarty, J.(1976). Combining Activities and
Group Psychotherapy in the Treatment of
Chronic Schizophrenia.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27(8).
- Gerstel, N.(1996). The Therapeutic incarceration of
Homeless Families. *Social Service Review*. 79(4).
- Neal, J.(1997). Homelessness and Theory.
Reconsidered Housing Studies. 12(1).
- Pilliavin, L., Sosin, M., Westerfelt, A. H., &
Matsueda, R. L.(1993). The Duration of
Homeless Careers: An Exploratory Study.
Social Service Review. 67(4).
- Starr. A.(1979). Psychodrama: Illustrated Therapeutic
Techniques. Chicago: Nelson-hall.
- Stoner, M.R.(1983). The Plight of Homeless
Women. *Social Service Review*. 57(4).
- Yalom(1970).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Waderson, H.S.(1980). Art Psychotherapy. New
York: Hohn Wiley and sons.